

스포츠화제

91. 10. 22

씨름판도 '남녀평등' 바람

살바를 아무지게 조여맨 여성 씨름꾼들이 대거 모래판으로 모여들기 시작,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져왔던 씨름판에 '남녀평등'의 모래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전남 구례군과 경북 의성군 등에서는 '난장 씨름판'을 통해 가끔 선보이기도 했던 여자 씨름이 마침내 지난 91 전국씨름왕대회(18~20일 포항)에서 각 시도를 대표한 24명의 '여장부'들이 출전한 가운데 전국적 규모로는 첫 대회를 가졌다.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에서부터 직장여성, 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선수층을 바탕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여성 씨름꾼들이 첫 대회를 치르는 초년생답지 않은 다양한 기술을 선보여 전문가들조차 놀라운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애초 이번 여자씨름은 시범경기로 치러진 까닭에 선수들의 기술이 단조로울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오금당기기와 등과 같은 날렵한 손기술과 밀어치기·들배치기에 이은 안다리

기술 등 연속동작도 훌륭히 구사해내 전통 민속경기로서 여자씨름의 앞날을 밝게 해줬다.

또한 날카로운 기합소리와 섬세한 몸동작이 어우러진 여성씨름이 이처럼 자리잡아감에 따라 그동안 여성씨름에 굽지 않은 눈길을 보내왔던 보수적인 씨름인들에게도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경기로서의 부활에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첫 '부부 씨름꾼'의 탄생이 화제로 떠올랐다.

제주도를 대표해 출전한 '승범이 엄마' 서순덕(36·북제주 한림읍 한수리)씨는 비록 8강전에서 42살 주부 김찬숙(경북)씨에게 져 4강에는 못올랐지만 씨름선수 출신인 남편 함동운(37·제주씨름협회 심판이사)씨와 더불어 '부부 씨름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씨름이 좋아서 씨름경기장을 자주 찾아다니며 씨름구경을 하다가 씨름선수였던 함동운씨에게

반해 결혼까지 해버린 서순덕씨는 지난 8월4일 여자씨름왕 선발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남편으로부터 전해듣자마자 그날로 살바를 잡을 만큼 씨름에 대한 열정이 깊은 2남1녀의 어머니이다.



'부부 씨름꾼' 서순덕(제주·사진 왼쪽)씨와 함동운(제주씨름협회 심판이사·전 씨름선수)씨가 전국대회 규모로는 첫 대회인 91씨름왕 여자부 경기를 함께 지켜보고 있다.

맞붙을 때 당연히 불리하다"며 경기결과를 분석해 주기도 했다.

제주도엔 더이상 맞붙을 상대가 없어 남편의 지도와 중학교 3년인 아들 승범(1m66·70kg)이와 연습을 해왔다는 서순덕씨는 "내

전국 규모 첫 대회... 전문가들 "활성화 기대" 선수출신 남편이어 출전 '부부씨름꾼' 화제도

서순덕씨의 개인코치(?) 역할을 담당한 함동운씨는 "승범이 엄마는 늘 씨름을 봐와서 기술은 용력이 뛰어나고 팔힘이 워낙 좋아 배지기 기술은 국내 최정상일 것"이라며 서순덕씨를 한껏 칭찬한 뒤 "4강에 못오른 것은 제주도엔 큰 사람이 없어 큰 사람과

넌엔 기필코 씨름왕에 오르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를 지켜본 씨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여성씨름이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 씨름을 보다 흥미있는 경기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철 조흥금고 감독은 "씨름은 기본동작과 간단한 규칙을 일반사람들도 거의 알고 있을 정도로 전통 민속경기인 데다 최근 텔레비전·신문매체를 통해서도 여성들에게 급속히 확산된 것이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됐다"며 "여성씨름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말했다.

체육과학대 홍장표 교수도 "유도·레슬링에서 나타나듯이 격투기에서도 더이상 '남성전용'이란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씨름에서도 여성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균형된 체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씨름훈련법을 응용한 갖가지 생활체조도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74년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씨름훈련법을 응용한 생활체조를 발표한 바 있는 김태성씨는 여성씨름이 활성화됨에 따라 안다리·뱃다리 동작 등을 이용한 씨름체조를 더욱 가다듬어 체계적으로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가정주부 선수들은 한결같이 경기방식의 세분화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즉 여성씨름의 충분한 저변확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체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미혼·기혼여성의 분리, 유도 등을 전공한 선수들과도 구별해서

맞붙기를 해야 참가의욕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여성씨름이 단순히 재미있는 '구경거리'에서 벗어나 생활 속의 체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많은 씨름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포항=김용성 기자〉